

宗教 定義의 批判 (九)

哲學博士 金永義

두어 椰子樹가 서있는 慌茫한 아프리카의 沙漠에서 소리 업는 하늘이 소리 업는 땅에서나마 그 宇宙를 支配하는 뜨는 해 지는 달을 넘어 잇는 그 最高實在와 調和되려는 그 渴望, 그 調和에서 나는 經驗을 이저서는 안된다. 이는 現實의 苦痛과 煩悶과 工場을 쳐나가서가 아니라 이 소리내는 現在生活에서나마 이 모든 것을 支配하는 그 實在와 調和하는 것이 宗教의 實在이다. 비록 音樂은 사람의 삶 싸담에 잇지만은 音樂을 爲한 音樂의 經驗이 잇듯, 藝術은 삶을 爲한 것이나 藝術을 爲한 藝術의 經驗이 잇듯, 宗教亦是 삶을 爲한 것이나 宗教를 爲한 宗教의 神秘的 經驗을 이저서는 아니 된다. 『해브라 엘리스』가 말함 가티 『宗教가 비록 달은 形態 속에 가려 잇서도 그의 心核은 同一하고 사람의 가슴에 깊히 백여 잇다. 넷날 神秘 宗教生活者가 神을 입에 쓴치지지 안는 한숨이라 함은 참된 말이다. 가다가다 우리는 慰安을 받는 깊은 숨을 쉰다. 그것이 宗教이다.』라고 함이 이 神秘的 生活을 말함이다. 이것이 『루돌푸 오토』 教授가 主張하는 『生物의 情緒이다 □□잇는 一對의 最高實在 압해 自我를 스사로 虛無인 듯이 늦기는 바이다. 最高實在은 알 수 업는 威嚴잇는 神秘로서 사람에게 무서움과 空白한 驚嘆을 가지게 하면 서도 사람의 마음을 쓰으려내는 그 무엇일 것이다. 이것이 舊約聖書에서 神을 가르쳐 『거룩이라는 일흠을 가지고 永遠히 살어게신 놉고도 거룩하신 이라.』는 情緒를 나게 하는 經驗이다. 아모리한 疑訝와 嫌疑를 바들지라도 이 神秘的 經驗이 업시는 眞善美의 表現을 볼 새마다 그것들의 最上 실재 압해 屈伏하면서 調和되는 이 事實이 업시는 宗教는 宗教된 持性의 큰 部分을 이 증이겠다.

더욱히 宗教는 이 情緒的 調和에만 쓴치지지 안는다. 사람들은 道德的, 內心的 危機에 이를 새 落望하는 마음을 이르기면서 새 勇氣를 주는 神을 願하

는 것이다. 自己가 生覺하는 바 罪, 內心的 失手, 道德的 잘못을 因하여 쓰거
운 苦惱의 불이 가슴에서 탈 때 사람은 그 불을 끄고 그 苦惱하는 마음에
새 希望을 주는 仁慈한 神을 願하는 것이다. 沙漠의 먼 길을 지친 걸음으로
가서라도 댁밖에 있는 그 寺院에 한번 參拜하자는 그 決心으로 가는 그들의
가슴을 높이는 묵어운 짐을 벗기어줄 神, 自己의 罪를 代贖한다고 二三年 동
안에 沈默하면서 몸에서 피가 나도록 스사로 채직질 하는 그 압흔 마음의
압흔을 덜어줄 仁慈하신 最高 實在를 願하는 것이다. 그야 勿論 自己가 罪로
생각하는 것이 罪가 아닌 때도 있고 自己의 가슴을 압히는 것이 自己 스사
로의 無識에서 나는 것도 事實이겠다. 그러나 最高實在의 힘을 어더 가지고
自我의 內的 生活, 좀 더 神聖化하고 自我의 人格을 좀 더 高潔하게 하자는
渴望이 宗教 經驗의 한 部分이다. 좀 더 깊은 바닥으로 들어가는 것 가티 우
리의 內的 生活이 墮落되어가는 때 우리들을 붓잡어 이끌어내는 듯한 그
贖罪的 救援을 宗教는 要求하는 것이겠다

사라서 우리가 모든 型式으로 禮拜하는 것이 이 最高 實在와 聯絡하자는
것이다. 가장 親한 벗들이 自己들이 가지는 그 情에 잇서 서로 思慕하는 말
이 나오듯 비록 우리의 指導者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과 恩惠를 줄 때 우리
는 그들에게 感謝하고 그들의 도움을 쫓 다시 後期에 받아듯이 우리의 宗教
生活에도 亦是 神에게 對한 感謝와 恩惠를 말한다. 우리의 노래와 音樂으로
모든 아름다운 藝術的 表現으로 類가 달고 意味가 달은 모든 아름다운 藝
術로 類가 달고[다르고] 意味가 달은 모든 形式으로서 이 神人 調和의 禮拜
를 나타낸다. 風俗이 달고 社會의 制度가 달은 卍답에 種族의 感情을 發見
하는 方式과 熟度에 卍라 사랑의 表現은 달으나마, 自己 個人이 나타내는 方
식은 달으나마, 가슴 속에 잇는 쓰거운 마음 自我의 사랑인 對象體에게 바치
는 그 內面的 本質에는 아모 區別이 업시 普遍的인 듯. 文化의 生活 形便을
卍라 神에 對한 情緒를 發表하는 그 禮式과 法은 달으나마, 禮拜의 形式 거
기에 쓰는 모든 소리, 빛, 말은 宗教를 卍아 달으드라도 그것이 이 神秘的
經驗을주는 神과 사람 사이에 쓰거운 情緒가 서로 通하게 되는 바에는 同一
할 것이다.